

# 전남·경남, COP28 유치 총력전

### 남해안 남중권 개최 최적지 강조 속박시설 확보·접근성 등 강점

전남도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 최적지인 남해안 남중권을 강조하며,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95

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다. 5개 대륙을 순회하며 해마다 개최한다. COP28은 아시아 대륙이 개최할 차례다.

지난 5월 대통령이 '2021 P4G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COP28의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전남·경남의 남해안 남중권을 비롯해 인천, 경기 고양

시, 제주도, 부산 등도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안 남중권은 전남 동부권의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과 경남 서부권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고성 등 12개 시군이 해당된다.

남해안 남중권은 COP28을 개최하기에 최적지다. 한려해상, 지리산 국립공원, 람사르습지이자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

로 지정된 순천만·보성 갯벌 등 다양한 기후 특성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전 세계의 기후 이슈에 맞춰 COP 부대행사를 계획할 수 있다.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엑스포 시설과 함께 재생 가능한 친환경 가설 시설물을 설치해 충분한 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1,800실 이

상의 숙박시설 확보와 여수공항과 함께 사천·광주·무안공항이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에서도 강점이 있다.

전남과 경남은 13년 전부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2008년 COP18을 카타르에 양보하고, 2014년 COP23을 유치하고자 했으나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남해안 남중권은 260여 명의 민·관·산·학 대표와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COP28을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에 뜻을 같이 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유치 지지도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경남을 포함한 서울, 경기,

충남, 광주, 경북, 전북, 강원, 충북, 세종 등 11개 광역지자체장이 한뜻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탄소중립 실현에 방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의 상징적인 지역, 남해안 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하게 되면 전남과 경남의 동서 화합을 넘어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길용현 기자

## 지역 특화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활성화 견인

### 도, 복합레저시설 구축 내년 국비 151억 반영

전남도는 올해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에 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관련 국비 151억 원을 반영, 지역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30년간 오시야 관광단지 분야에 걸림돌이었던 하수처리시설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근 나선 결과 올해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2017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 시설설계 용역비로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은 1,500톤/일 규모다. 총사업비 213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내년도 설치비 33억 원 국비 지원을 건의해 정

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광호텔&리조트를 추진 중이다. 2022년 착공 예정으로 도는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 정부예산안에 108억 원이 포함됐다. 관광호텔은 객실 120실을 비롯해 부대시설로 인피니티 풀, 레스토랑, 연회장 등을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 410억 원을 들여 2023년 개장할 계획이다.

여수 화양면 나진리 일원 51만㎡ 부지에는 지난 7월 착공식이 열린 여수 쉼린지파크 관광단지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2,300억 원을 들여 엑스트림 체험시설을 비롯한 총 566실 규모 호텔, 아트빌리지·드림하우스 33실, 풀빌라 하우스 16실 등 복합레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또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함평 사포관광지 확대 개발 등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도 계속해서 확충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는 오는 10월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이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기재부와 문체부에 용역비 반영을 적극 요청, 내년 문체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전남·광주·부울경 전국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남해안의 빼어난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 글로벌 해양관광거점 구축 프로젝트다. 2023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문체부의 기본계획 용역에 전남의 특색을 살린 자체 발굴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지로서,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께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해양, 생태, 문화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거점형 관광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캠벨과 면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방미단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페어몬트 호텔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실현 박차

### 민·관·학·산 협치체계 구축 RE100 시민클럽 가입 활발 태양광·수소 에너지 보급 확대

광주시가 지난해 7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한 이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는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결실을 맺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상태 공동선포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고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그린뉴딜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서구 농성동 빛어울재아파트 옥상에 274kW 규모의 시민 햇빛발전소 1호가 가동을 시작했다. 협동조합이 시민 펀딩을 통해 2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도시공사가 각각 출

자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연간 발전량은 360MWh에 달하며, 발전수익은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에 재투자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를 구축한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도 문을 열었다. 올해는 자치구별 1개소씩 지원, 풍암, 양림, 일곡, 첨단마을에 거점센터를 조성했다. 거점센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홍보·교육을 비롯해 가정마다 태양광발전기 설치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마을별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시민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민들도 생활 속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시민클럽' 가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일반 시민에게 RE100 인증을 부여해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이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걸음을 살려 인공지능과 전력거래를 연계한 에너지 용

복합산업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첨단과학산업단지 2.5km에서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통해 자동차나 건물에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파트 7개 단지 6240세대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통해 그린요금제, 가상발전소 등 새로운 전기 생산·판매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양광, 수소 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주택, 건물 등 2,222개소에 태양광 8,390kW, 태양열 1143㎡를 보급하고, 아파트 820개소에 배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총 164억원으로 제2순환도로 방음벽과 방음터널에 적합한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을 개발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추진 공공임대주택 입주·정착 등

광주시는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부터 보조금 지원, 입주지원까지 이주·정착과

정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집중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 및 정착을 통합 지원한다.

지난달까지 사업대상자인 북구, 광산구 지역 주거취약계층 331건의 상담을 통해 32세대 중 17세대가 이주했다. 이외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10월부터 12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지하층 과 비주택(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를 대

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 주거상향지원사업 사전홍보-현장방문조사-주거복지상담-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난 6월 개소한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는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거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상무역을 시작으로 광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30여 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 녹색 교통 실천 친환경 교통주간 운영

광주시는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을 맞아 23일부터 29일까지 저탄소 녹색 교통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 주간'을 운영한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기념일이다. 올해는 '굿바이! 미세먼지'를 슬로건으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

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는 시내 주요 교차로 5개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매일 퇴근시간대에 '편하게 걷자! 안전하게 자전거 타자!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내용으로 현수막, 피켓, 티셔츠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가용 이용

통제 행사는 추진하지 않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스터,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우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비대면을 생활화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친환경 교통주간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네모난 교실은 잇어라!



###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M 전남매일 | 제11회 학교폭력예방 연중캠페인 |

